천주교 전주교구 주보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전화 85-0041~3
FAX (0652) 85-0119

숲정이

너희는 그저 '예'할것은 '예'하고 '아니오'할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마태오 5 : 37)

강 론

계약의 말씀 곧 사랑의 법

박 진량신부/장계주임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나 법이 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의 가치를 제시하며 발전시킨다. 그런데 아주 착하고 정직한 사람을 일컬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 표현하는 반면에 성서에서는 "법대로 사는"(마태1,19)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법에 대한 생활감각이 성서의 그것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자들은 성서에서 말하는 법(계명)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성서에 보면 법은 하느님으로 부터 나온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예언자의 말은 왕이라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모세에 의하여 작성된 모세오경이 이스라엘의 법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 법은 바로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계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설해 놓은 계약조문들이었다. 따라서 이것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게 마련이었다.

예수께서는 구약의 계약말씀이 오랫동안 내려오는 사이에 사람들의 불신과 인습 때문에 외형주의에 빠져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하느님의 뜻에 따라 당신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심으로써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다. 이것은 구약의 불완전함을 극복하고 새롭고도 최종적이며 모든 인류에게까지 적용되는 신약의 말씀이다.

오늘 성서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이 새계약말씀이 저 구약의 말씀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신다. 먼저 구약과 신약의 기본방향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던 것이다. 둘째 모든 계명(법)을 겉치레나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정신으로 그것을 실천하라고 강조하신다. 이것을 구약과는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계명을 제시하신 것이므로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신약의 계약말씀은 바로 사랑의 법이다. 왜냐하면 그 법이 생겨난 것도 사랑 때문이고 그 법을 지키는 자도 사랑이 없이는 실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계약의 말씀을 우리는 각기 세례 때에 받아들여 지키기로, 말하자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사랑의 법, 계약의 말씀을 매순간 새롭게 받아들여 실천하는 일만 남아 있다. 자유로이 사랑의 마음으로 믿고 실천하는 자는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이다.

소 리

솔로몬의 재판

평양 축전에 참가했던 임수경양과 문규현신부에게 제1심은 중형을 선고했다. 이 재판은 그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평양 축전에 참가했는지의 여부」와 「전대협의 구성과 학생운동 전반에 관해 북한측에 기밀을 제공한 것이 군사상의 이익 공여죄를 구성하는지의 여부」가 큰 쟁점이 되어 왔다. 그런데 법원은 이에 대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예로부터 송사(訟事)를 다루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하는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려왔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주변에서 아이들 싸움이 어른들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꼴을 가끔은 본다. 그것은 정에 끌려 제 자식의 편만 들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제자식들끼리의 다툼에서도 어느 한 편의 말을 더 들어주다보면 부자간에도 틈이 생기기까지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툼의 시비를 공정하게 가려주는 법관을 존경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의 재판에서는 그 공정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같다. 그 과정이나 절차에 얼마나 문제가 있었으면 변호인들이 변론을 포기했을까? 임양 등은 북한에 머물며 북한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고, 일방적인 정치선전 집회의 참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정상참작은 없었고, 검찰의 의견만 받아들여졌다. 더구나 지금 보안법 개폐문제가 국회에서 다루어 지려고 하는 판인데, 그 법률적용이 너무나 구태의연하고 말았다.

솔로몬의 현명한 재판을 왜 이 시대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가?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망이 바르게 심판받을 길은 정녕 없는 것인가? 죄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치라(요한8,7)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꾸만 심장을 고동치게 하는 연고는 무엇인가? (한)

숲정이 산책

법의 형평을 잃은 재판!

성 명 서

-임수경 양과 문규현 신부의 1차 공판은 공개재판의 원칙과 법의 형평을 잃은 부당한 재판이다-

이번 임수경 양과 문규현 신부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1차 공판은 공개재판과 법의 형평을 잃은 부당한 재판이다.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모든 재판은 피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일반 국민의 방청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가 지금까지의 공판과정 중, 방청권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부당한 방청의 제한과 첫번째 공판에서 변호인단에 의해 요청되고 허용하기로 약속한 법정진술내용의 녹음마저도 뚜렷한 이유없이 불허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처사를 일삼아 변호인단의 변론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마저도 거부하였다.

이는 두 사람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당히 이야기할 권리와 국민들의 공정한 판단의 기회마저도 보장되지 못하는 공개재판의 원칙을 저버린 그릇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법원 주위에 천여명의 전투경찰을 동원하여 삼엄한 분위기를 조장하며, 일반인의 접근을 저지하고, 입장과정에서 방청권 소지자들에게 행한 과도하고 모욕적인 몸수색은 물론, 법정에서마저 수십명의 사복경찰을 배치하여 피고인들이 억압적 분위기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행위는 민주적 법치국가임을 의심케하는 치사라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을 법정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잠옷차림의 피고인을 이른 새벽부터 완력에 의해 강제호송하고, 정당한 법절차를 밟아 면회중인 외국인 사제를 아무런 납득할 만한 설명없이, 강제로 중단시키는 비인격적 행위는 지탄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재판장에서의 소란을 이유로 다수의 학생들을 감치처분한 재판부가 일부 우익단체의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묵인하는 태도만으로도 이 재판의 공정성은 의심받기에 족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공개재판의 원칙과 자유변론의 권리를 심대히 훼손한 이번 1차 공판의 전과정과 그 판결이 원칙적으로 공개재판의 원칙과 법의 형평을 잃은 부당한 재판임을 선언한다. 사법부는 법치국가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 사명을 다시금 자각하여 죄없는 국민의 보호자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따라서 다음에 열릴 2차 공판에서는 반드시 공개재판의 원칙이 수용되어 방청권의 제한을 중단하고 진술내용을 국민 모두에게 알리기 위한 진술녹음이 허용되어야 한다. 우리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은 앞으로 전개될 재판에서 보여질 사법부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다.

더불어 이 민족의 진정한 화해와 일치를 가로막고 있는 전대미문의 악법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1990년 2월 5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미사의 기원

미사해설①에서 미사(Missa)란 라틴말 미떼레(Mitere : 돌려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로 말씀의 전례를 마치고 예비신자들을 돌려 보내는 성대한 예식에서 나왔음을 살펴 보았다. 말씀과 성찬의 예식이 거행된지 훨씬 후에 적어도 300년이 지난후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땅의 첫미사는 주님의 최후의 만찬이다. 이 날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의 축제일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여년간의 이집트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날-어린양의 살과 피의 덕분으로 죽음에서 걸러졌음(빠스카)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날 어린양의 살과 피 대신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 이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죽음을 면하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마련하신 것이다. 즉 미사는 구약의 빠스카 축제가 온 인류의 구원의 축제로 완성된 제사인 것이다. 그 옛날 어린양의 살과 피로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과 종살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민족을 이루었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죽음과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느님 나라의 시민으로 새로 탄생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미사를 통해 마지막날 제자들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꼭 같이 베풀어지고 있음을 체험한다. 미사를 통해 나타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은 현실적 구원이 되어 삶의 고통과 죽음을 넘어선 기쁨과 희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매일 매일 봉헌되는 미사-이는 하느님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지는 순간이다. (편집부)

독일형
삼익피아노
김제 · 부안대리점
권 성만 (요셉)
☎ (0658) 44-8204
44-8206
야 43-9200

교사채용
1. 과목 : 국어, 지학, 화학, 가정 각1명
2. 구비서류 : 이력서, 교사자격증사본, 교교생활기록부 사본, 대학교전학년성적증명서 각 1부
3. 제출처 : 정주고등학교서무과 (정주32-8791)
4. 제출마감 : 90년 2월14일(수)
5. 시험일 : 서류심사후 개별통지함.
※ 교육경력자는 우대함.
학교법인 종삼학원

한약 양약조제 · 한방보약
용〈元茸〉 九蒸苧 人蔘
GN
영 세 당 약 국
약사 정 우진 (이사약) · 황 신숙 (레베카)
전주시 완산국교 사거리 ☎ 6-6422. 6-5326 ※ 일요일은 휴무

잠 깐!

안수하면 병이 낫는가?

예수께선 자주 안수(按手)하셨다. 어린이를 축복하시며 손을 얹으셨고(마르10,16) '여인아, 네병이 이미 너에게서 떨어졌다(루가13,12-13)고 병을 고치시면서도 안수하셨다. 또한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들의 병이 치유될 것이다(마르16,18)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 역시 안수로 병을 치유할 수 있었다. 아나니아는 회심한 사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었고(사도9,12) 바오로 역시 안수로 멜리데섬의 지도자를 치유해 주었다(사도28,8)· 또 안수는 특별히 성령을 부어 주는 표시로 사용되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므로 성령의 선물을 주었다(사도19,6)· 문제는 이 안수를 돈벌이나 인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려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사도들이 손을 얹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지켜보던 「시몬」이라는 고약한 사람은 사도들에게 돈을 내면서 "나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요"(사도8,19)라고 청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오늘의 문제로 대두되는 모양이다. 몇몇 못된 사람들이 '안수'를 빌미로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결코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돈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하느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 안수는 받아도 세속적인 어떤 것을 일체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말한다. "당신은 하느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작정이요?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사도8, 21).

혹, 이러한 못된 행위를 보거든 교구 사목국으로 연락바란다.(전화(0652)85-0041) (권)

요십이 (862) 김병오

교 구 소 식

축! 이리 송학동 성전 신축 기공식 : 일시-1990년2월18일 주례-교구장 직무대행 김환철 신부 제1부-미사(오전10시) 제2부-기공식(오전11시30분) 제3부-나눔의 잔치

1. 본당 사무장, 사무원 연수 : 2월14일(수) 전10시 장소-가톨릭센타
2. 혼인강좌 : 2월25일(일) 오전9시30분 장소-가톨릭센타
3. 초등부 교리교사 동계연수 : 2월17일(토)~19일(월) 장소-무주자연학습원
4. 중·고등부 교리교사 동계연수 : 2월24일(토)~26일(월) 장소-무주자연학습원
5. 훠꼴라레운동의 젠 모임 : 2월18일(일) 오후2시30분 가톨릭센타 3층 대상-①3젠(국교-중학생) ②2젠(고등학생-미혼여성) ③기혼자(결혼한 주부)
6. 사랑의 씨튼수녀회 성소피정 : 전주-2월18일 오후2시-5시(매월 세째주일) 장소-동산동 천주교회 수녀원(77-4212) 광주-2월25일 오전9시30분--오후5시(매월 네째주일) 사랑의 씨튼수녀회 한국본원(광주시 북구 본촌동) (062)571-3004
7. 성 빈센트 드·뽈 자비의 수녀회 성소자 모임 "너 어디 있느냐?" : 대상-수도생활에 관심있는 고졸 이상 28세 미만의 미혼여성 일시-2월18일 오후1시30분 장소-수녀원 본원(수원시 장안구 지동93-3 0331,6-4961)
8. 동정 성모회 메리워드모임 : (이리성모의원내) 2월18일 오후2시 준비물 : 성가책, 필기도구

양재 · 한복 · 홈패션
노라노학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 (대건안드레아)
동부시장앞 · 민정당사옆
☎86-2715

사랑의 메아리
수화발표회
때 : 1990. 2. 18(일)오후 3시
곳 : 전주 가톨릭센타 3층 강당

개업인사 드립니다
신속과 친절로 보답하겠습니다
신서일가스
정 바오로 · 최 마리아
☎ 71-0267, 72-0678
251-3555, 71-0268
4-3375

사 원 모 집
당사는 전자부품 제조업체로서 성실한 생산직 여자사원을 모집합니다.
1. 자 격 : 만16세이상 34세미만
2. 제출서류 : 이력서 · 주민등록등본 1통
3. 야간학교 입학생은 만14세 이상
4. 기숙가능함.
5. 모집기간 : 1990. 2월5일부터 2월17일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로 문의 바랍니다.
알 · 에프 · 하이텍
전주시 금암 1동 1556-3 ☎ 5-3697

현대미용학원
김 금 순 (데레사)
☎86-2211
구 서중앙

연지·곤지·웨딩드레스
약혼복 · 무대복 · 미춤대여
비데오 · 야외스냅촬영
신부화장
유 순례 (가타리나)
전동성당 시내버스 승강장
☎82-2347

해성 중·고동창회 정기총회 : 2월 18일 오전10시 30분 모교대강당 윤호관, 회비 : ₩ 1,000

북전주지구 본당소식

*중앙

사제관 77-1713 수녀원 5-1714 주임신부 황 인 규
사무실 77-1711 유치원 77-1712 보좌신부 최 용 준
보좌신부 한 병 헌
사목회장 황 의 옥

1. 예비자 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인도바랍니다.(별지상단 참조) 2. 빈미사 : 13일(화) 오후2시-1구역3반, 15일(목) 오후2시-2구역1반 *반미사에 한가정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시기
3. 모임 . 제속형제회 심의회-오늘 공식미사후, 오월의 마돈나꼬미씨움-오늘 오후2시, 빈첸시오회-14일(수) 오전11시, 상지회-14일(수) 오후8시, 성모회-16일(금) 어머니미사후, 은총의 어머니 꾸리아-16일(금) 어머니미사후, 천주의 모친 꾸리아-16일(금) 오후3시 하늘의 문 꾸리아-다음주일 오후2시
4. 전례위원 모집 : 미사해설에 뜻이 있는 분은 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5. 2월의 기도지향 : "구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체조배에 많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6. 매주판매 : 과천 영보수녀원에서 만든 메주를 성심부녀회에서 판매중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7. 성모유치원 제15회 졸업식 : 14일(수) 오전10시30분 □지난주봉헌금 : 1,488,100원 □교무금1,881,600원

*금암

FAX 251-3850
사제관 251-1912 주임신부 왕 수 해
사무실 251-1911 보좌신부 이 사 정
수녀원 251-1913 사목회장 정 주 환

1. 예비자교리안내 : 일요일 오전9시, 화요일 오전10시, 저녁8시(교육관)
2. 교육가족회 모임 : 오늘 공식미사후
3. 구역장 반장님 모임 : 오늘 공식미사후
4. 꾸리아 : 차주 오후2시
5. 안나회 : 16일 오전10시(65세 이상)
6. 성서공부에 참여합시다 : 목요일 오전10시, 저녁8시
7. 금주전례 : 해설-박희정 독서①김인선 ②정화자 봉헌-박기원부부 복사-이창성 최계호
8. 차주전례 : 해설-김종구 독서①김옥기 ②문정순 봉헌-이창성부부 복사-김명수 장유진

□지난주봉헌금 : 1,005,610원 □교무금 : 424,000원

*덕진

사제관 72-3389 주임신부 성 태 수
사무실 3-2182 보좌신부 오 성 기
수·유 72-1222 사목회장 양 상 렬

※ 성서 공개 강좌 : 다음주일 공식미사, 저녁미사 강론시간에 합니다.
※ 성서강의 수강 신청 : 3월4일까지 본당 사무실 수강료-1만원(교재비 포함)
1. 성화회 : 공식미사후
2. 청년(젊은이) 교리반 개강 : 보좌신부님, 매주 수요일 저녁 7시30분
3. 엘루살렘부녀회 : 16일 오전11시
4. 금주전례 : 해설-박기자 복사·독서-사목회 기도-덕진20반
5. 금주본당청소 : 사랑하올 모친Pr-17일 오후2시

□지난주봉헌금 : 934,620원 □1,179,000원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소 순 형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박 영 철
수녀원 77-4212

※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순(아녜스) 수녀님.
1. 유아세례 : 오늘 공식미사후
2. 모임 : 오늘 공식미사후-안나회, 글라라회, 17일-동성회
3. 구역장회의 : 16일 오후7시30분 사제관-한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바랍니다.
4. 구역미사(13일) : 동산8구역
5. 나눔잔치(14일) : 동산5구역
6. 금주청소 : 죄인의 의탁Pr. 차주-샛별Pr.
7. 금주전례 : 해설-한기철 독서①육문용 ②전정순

□지난주봉헌금 : 379,930원 □교무금 : 183,000원

*서신동

사제관 4-2214. 주임신부 박 성 팔
사무실 4-2214 사목회장 박 병 열

1. 벽돌헌금 및 폐품 수집 : 우리들의 정성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룰 것입니다.
2. 예비자 모집(2월반) : 2월11일 공식미사후-수녀님 지도
3. 성전 신축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성전신축을 위한 바이오 세레믹 원적외선 요판매 : 사목회
5. 숲정이 신용조합 정기총회 : 2월25일 오전11시30분 장소-숲정이 성당

6. 금주모임 : 공식미사후-성조회, 울뜨레아 차주-꾸리아
금주청소 : 메꾀의 모후 차주 : 증거자의 모후
금주전례 : 해설-김옥기 독서①백현기 ②임방옥
차주전례 : 해설-김옥기 독서①한병훈 ②김복순
□지난주봉헌금 : 360,380원 □교무금 : 256,200원

*송천동

사제관 74-8873 주임신부 김 태
사무실 74-1004 사목회장 김 인
수녀원 4-1142

1. 오늘의 모임 : 바울로, 하상바울로회, 안나회-공식미사후
2. 각단체 임원개편 : 요셉회 ; 회장-정규환 부회장-문제준 유근 박명선 총무-이원택 대건회 ; 회장-소병윤 부회장-이강 총무-은희돈 바울로회 ; 회장-김창곤 부회장-한인수 총무 장태기 하상바울로회 ; 회장-박해성 부회장-박병래 총무- 기성 안나회 ; 회장-전병홍 부회장-이선영 총무-조명순 성 부녀회 ; 회장-박임주 부회장-여정자 총무-박복자 회계- 남숙 간사-김금순 이종남 까리따스회 ; 회장-이명숙 부회장 최정희 총무-김순덕 회계-배송림 간사-유인숙 정옥순
3. 금주본당청소 : 송천2구역 17일 오전10시30분
4. 유아세례 : 24일 오후5시 사무실에 신청바람

□지난주봉헌금 : 600,040원 □교무금 : 487,000원

*숲정이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 궁 일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김 경 ㅊ
수녀원 3-9567

1. 오늘 : 수녀원 임차료 위한 2차헌금 있음. 모임-울뜨레아
2. 사무장·사무원 연수회 : 14일(수) 센타에서
3. ME주말(29차) : 16일~18일(천호)
4. 초등부 교리교사 연수 : 17일~19일(무주자연학습원)
5. 다음주일 : 꾸리아, '88심이사도회
6. 성가단원 모집 : 오늘까지 접수마감 합니다.(많은 참여바람)
7. 미납된 교무금 속히 내주시고 아직까지 올해의 교무금 신입 하신분은 신입하세요.
8. 앞마당 부지매입기금 납입이 너무도 부진합니다. 다같이 납입의 성의를 다합시다.
9. 금주전례 : ①황덕주 김용자 ②임창수 권정희
10. 차주전례 : ①윤규삼 김유자 ②양기술 하성자

□지난주봉헌금 : 533,690원 □교무금 : 700,500원

*인후동

사제관 86-8876 주임신부 서 용 ㅂ
수녀원 86-8875 사목회장 정 수 일
사무실 86-5022

1. 사목회 월례회의 : 11일 공식미사후
2. 요셉회 모임 : 12일 오후7시(백마강)
3. 제대회 월례회의 : 15일 어머니미사후
4. 성탄영세자, 고백성사 보세요. 매미사 15분전에.
5. 교무금은 월별로 납부 바랍니다. 세요
6. 어린이 종교교육에 관심을… 교리 주일3시 미사4시 꼭 보내ㅅ
7. 일상기도문(액자) 구입하여 기도하세요. 합시다
8. 수고하시겠습니다. 구역장님…, 평신도의 사명을 우리 모두 ㅣ
9. 작년 성지주일에 가져 가셨던 성지가지를 사무실로 가져오세요 (18일까지)
10. 신학대학 및 수도원에 가실분은 1년전에 본당 신부님과 면 바랍니다.
11. 신심단체에 가입합시다. 1인1단체 꼭 가입바람(신청-수녀

□지난주봉헌금 : 896,900원 감사드립니다.

*호성동

사제관 78-0075 주임신부 정 양 한
사무실 78-1140 사목회장 박 대 ㅜ

1. 사목방문 실시 : 2월13일(화)~16일(금), 시간-오후1시~5. 화-19구역(초원APT), 수-20구역(대영빌라1559~1565번지) 목-18구역(은남APT1566~1569번지), 금-17구역(세원, 우림 1570~1573번지)
2. 청년제단체 가입신청서 :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3. 예비자 교리안내 : 수-오후7시30분, 목-오전10시, 일-오전9 (학생반)
4. 학생들 교리, Gen모임 : 토요일 오후4시
5. 90년도 교무금 신입바람 : 361세대중 116세대 신입
6. 까리따스회 : 15일(목) 어머니미사후
7. 성지가지 사무실에 내주세요. 8. 비품구입에 협조해 주신분 감사 : 김용기, 이영분, 강오형, 익명 9. 공식미사 안내 : 신비로 장미Pr.

□지난주봉헌금 : 512,760원 □교무금 : 547,000원
□미수금 : 110,000원